

서정원의
## 불교미학산책

⑰ 정각원 불단(상단) 3

# 아미타불, 방편일까?

우리나라 불교의 특색이란 무엇일까? 같은 한자 문화권인 중국과 일본의 불교와 견준다면, 우리나라 불교의 특수성은 삼문수업(三門修業)에 있다.

중국불교는 실천 중심의 선(禪)과 정토(淨土)에 있고. 반대로 일본불교는 종파불교로 각 종이 서로 교학의 우수함을 내세움으로써 종학(宗學)이 발달했다고 여겨진다.

우리나라 불교의 경우 실천으로서 선과 교학으로서 화엄, 의례로서 정토라는 세 가지 문을 세웠는데, 이를 삼문수업이라고 한다.

즉, 선을 닦는 경절문(徑截門), 화엄을 배우는 원돈문(圓頓門), 정토의례를 중심으로 한 염불문(念佛門)이다.

이렇게 본다면 경절문-수행, 원돈문-교학, 염불문-신앙이라는 형태로 실천이나 교학 한 쪽에 집중하는 중국·일본의 불교보다 종합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5가7종의 가풍 중 유독 임제종과 간화선만을 선택하는 경절문과 팔만사천의 경전과 논서 속에서도 오로지 화엄만을 강조하는 면에서 외골수적 면모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정토교가 우리나라 불교에서 간화선과 화엄학에 버금가는 위상을 갖고 있는 것이 맞을까? 삼문이 평등한 것이 아니라, 대궐집에 주인들이 드나드는 대문이 두 개 있고, 그 옆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곳에 시종들이 오가는 쪽문 하나 있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정각원 상단의 부처님 앞에서 이런 사색을 갑자기 쏟아내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정각원 부처님이 아미타불이기 때문이다. 선방에서 방부를 틀거나 강원과 율원에서 연찬하는 일은 스님들의 이력에 당당히 적히는 반면, 부전을 살았다는 사실은 크게 자랑하거나 이력으로 여기지 않는 세태 속에서 우리나라 불교학의 최대 거점인 동국대 주법당에는 왜 아미타불을 모셨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산책할 사색의 길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말이 길어져 미처 언급하지 못한 것이 아미타불 이야기이다. 아미타불 이야기를 독자층 대부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고자 한다.

아미타불은 오랜 옛날 세자재왕여래께서 나타나셨을 때 한 나라의 왕이었다. 그는 붓다께서 세상에 나오셨음을 알고 왕위를 버리고 출가해 법장 스님이 됐는데, 세자재왕여래 앞에 나아가, 반드시 붓다가 되어 모든 중생을 구원하리라 서원을 세웠다. 그리고 세자재왕여래의 위신력을 빌려 무한히 많은 여러 붓다의 정토들을 관찰한 다음, 모든 불국토의 좋은 점을 모아 자신의 정토를 계획하였다. 한마디로 자신이 세울 정토의 블루프린트(청사진)를 그린 것이다.



성남 정토사 아미타불 내영도의 일부.

사진 출처=성남 정토사 홈페이지

**한국불교 특수성 삼문수업에 있어**
**정토교, 간화선 · 화엄학 위상 의문**
**미타정토는 상식을 뛰어넘은 세계**

이 블루프린트를 그리는 데 걸린 시간이 무려 5겁(劫)이다. 한 변의 길이가 40㎞인 정육면체의 강철을 선녀의 옷깃으로 100년마다 한 번씩 쓸어 다 닳을 때까지의 시간을 1겁이라고 한다. 단순 계산으로 서울에서 대전의 거리가 대략 200㎞이다. 서울과 대전까지의 거리를 한 변으로 하는 정육면체의 강철 덩어리를 선녀의 옷깃으로 100년마다 한 번씩 쓸어서 다 닳을 시간 동안 법장 스님은 자신의 블루프린트를 작성한 것이다. 얼마나 야심만만한 그림이었을까.

그는 완성된 자신의 블루프린트를 들고 다시 세자재왕여래 앞으로 갔다.(참고로 세자제왕여래의 수명은 42겁이었다고 한다.) 자신이 존경하는 붓다 앞에서 법장 스님은 당당하게 블루프린트의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하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48대원이다.

48대원은 법장 스님이 자신이 어떤 부처가 될 것인지, 자신이 만들 정토가 어떨 것인지, 그리고 중생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순서대로 섭법신원(攝法身願), 섭정토원(攝淨土願), 섭중생원(攝衆生願)이라고 하며 48개 각각의 원은 이 세 가지 원 중 하나에 속하게 된다.

아미타불 신앙의 핵심으로 알려진 십념왕생원은, 중생이 자신의 이름을 열 번만 부르면 임종 때 반드시 데리러 오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48대원 중 제18원이며, 큰 범주에서는 섭중생원에 속한다.

자기 스스로가 모든 붓다 중에서 최고의 붓다가 될 것이고, 자신의 세계가 모든 정토 중 최고의 정토가 될 것이며, 자신의 세계에 태어날 중생들은 반드시 붓다가 될 것이라는 이 야심을 법장 스님은 세자재왕여래 앞에서 거침없이 드러낸다.

세자재왕여래는 법장 스님에게 그의 계획이 블루프린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상에 실현될 것이며 48대원 모두가 성취되리라 확언하셨다.

그러고서 법장 스님은 자신의 계획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시켜 나갔다. 이것이 바로 법장 스님의 보살행이었다. 그 보살행을 통해 48대원의 서원이 모두 실현되는 날, 그는 아미타란 이름의 부처가 됐으며 그의 정토는 극락, 즉 극한으로 즐거운 세계라 하였다. 이 세계는 우리가 사는 지구이며, 불교에서는 남섬부주에서 서쪽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나면 있다고 한다. 아미타불의 수명은 아직도 무한히 남아 있다고 한다.

아미타불께서 극락에 계속 계시는 한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면 임종 시에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한다.

고성염불이니 염불삼매니 하지만 사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지성으로 열심히 할 필요도 없다. 열 번은 불러야 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법장 스님은 정확하게는 '내지십념(乃至十念)'이라 하셨다. 원효정토교학의 일인자이신 보광 스님은 이 내지십념을 한 번 내지 열 번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셨는데, 가장 타당한 이해로 보인다. 독자분들은 지금 한 번만 아미타불이라고 외워 보시라. 반드시 아미타불이 데리러 오시리라.

아미타불 이야기를 동화처럼 읽으신 분들이 많으리라. 현대 과학은 우주의 나이를 150억 년으로 추정하는데, 그렇다면 붓다의 시간은 무엇이며, 10만억 국토라는 은하단을 뛰어넘는 붓다의 공간은 무엇인지, 그저 상상의 세계가 아닌지 말이다.

현실 긍정의 선과 화엄은 좋아해도 이 정토문은 가볍게 동화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고, 간단히 이 동화를 방편이라고 이름해 버리는 데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이번 글의 목표였다. 그러나 지면은 한정돼 있어 다음 호에서 이를 이어가고자 한다.

〈동국대 박사〉

# 파계 비구 꾸짖으면 큰 죄 얻어



법공 스님의
## 〈지장십륜경〉 강의

㉞ 파계필추에 대한 십비법(十非法)

우파리 존자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정돈하며 부처님 발에 예배한 후 합장 공경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미래 세상에 계율을 깨뜨리고 악을 행하는 비구들이 있어 실은 사문이 아니면서 사문이라 칭하고 범행이 아니면서 범행이라 자칭한다면, 그런 비구와 사람에 대해 어떤 방편으로 꾸짖거나 쫓아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우파리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결코 외도나 속인들이 비구의 죄를 들추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모든 비구승에게 법에 의하지 않고 파계한 비구를 꾸짖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 하물며 쫓아냄이겠느냐? 만일 법에 의하지 않고 파계한 비구를 함부로 꾸짖거나 혹은 쫓아내면 곧 큰 죄를 얻느니라."

"우파리야, 너는 마땅히 알아야 한다. 파계한 비구를 함부로 꾸짖으면 열 가지 법이 아니므로 큰 죄를 얻으며, 지혜로운 이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열 가지란 어떤 것인가?

화합하지 않는 스님네가 ①국왕 앞에서 ②바라문 앞에서 ③대신들 앞에서 ④장자 거사들 앞에서 ⑤여인들 앞에서 ⑥거사들 앞에서 ⑦절에서 일하는 속인 앞에서 ⑧많은 비구와 비구니 앞에서 ⑨숙원을 가진 사람 앞에서 ⑩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파계한 비구를 함부로 꾸짖는 것 등이다.

이러한 열 가지를 비법이라 하며, 파계한 비구를 꾸짖으면 큰 죄를 얻는다. 또다시 파계한 비구를 꾸짖으면 큰 죄를 얻는 열 가지 비법이 있다. 지혜로운 모든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그 열 가지란 어떤 것인가?

①외도들이 ②계율을 지키지 않는 재가 속인들이 ③무간 죄를 지은 이가 ④정법을 비방하는 이가 ⑤성현을 헐뜯는 이가 ⑥어리석고 미친 이가 ⑦고통에 얽매인 이가 ⑧스님의 심부름꾼이 ⑨동산지기가 ⑩벌을 받는 비구가 비구를 꾸짖는 것이다.

이 같은 열 가지 비법으로 파계한 비구를 꾸짖으면 큰 죄를 얻는다. 설사 사실에 의해 꾸짖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거늘, 하물며 사실이 아님에야 어떠하겠는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도 또한 큰 죄를 얻느니라.

우파리야, 만일 어떤 비구가 계율을 범하고서도 스님네와 함께 살고 있으면 스님네 가운데 다른 비구는 마땅히 자리에서 일어나 구족하게 궤칙(軌則)을 행하고, 일체의 *오덕(五德)이 원만한 (상좌에게) 의복을 단정히 하고 상좌 비구 발에 공경히 정례하며, 곧 파계한 나쁜 비구 앞에서 (그가 지은 죄를) 거론할 것을 허락받고 (악 비구에게) 이같이 말해야 하느니라."

"장로(長老)님은 기억하십시오. 지금 저는 장로가 범한 죄를 들고자 합니다. ①이것은 진실이요, 거짓이 아니며 ②때에 맞으며 때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며 ③부드러운 말이요, 거친 말이 아니며 ④사랑하는 마음이요, 성냄이 아니며 ⑤이익이 되는 것이요, 손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래의 법안(法眼)과 법의 등불로 하여금 오래도록 치성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장로님이 들어주신다면, 나는 법답게 장로님의 죄를 들겠습니다."

그리하여 만일 그가 들어주면 법답고 여실히 그 죄를 들을 것이요, 만일 들어주지 않는다면 다시 상좌(上座) 스님의 발에 공손히 예배하고 "이 비구는 이런 죄를 범했으므로 나는 오법(五法)에 의해 여실히 그것을 들겠습니다"라고 사뢰어야 한다.

"그때 스님네 중 상좌 비구는 마땅히 죄를 거론하는 사람과 죄 지은 사람과 그 범한 일의 허실과 경중을 자세히 관찰하고 율장과 경장에 의해 방편으로 조사하고 물어보아, 위로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면서 *칠법(七法)으로 근기에 따라 범한 죄를 멸하도록 하되, 죄가 무거우면 무겁게, 중간이면 중간으로, 가벼우면 가볍게 다스리며 지은 죄를 부끄러워하고 뉘우치도록 해야 하느니라."

그때 우파리는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진실로 허물과 악행이 있는 비구가 속인·재보·변재·제자의 힘 등 세력을 믿고 스님들에게 항거하고, 상좌 스님이 경·율·논장 등으로 법답게 잘 뉘우치게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벌로 다스려야 합니까?"

***오덕(五德)**: 자자(自恣)하는 죄를 거론할 경우 그 비구가 갖춰야 할 다섯 가지 덕으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①좋아하지 않는 것 ②성내지 않는 것 ③두려워하지 않는 것 ④부드러울 것 ⑤자자와 자자가 아닌 것을 아는 것이며, 또 다른 종류는 ①때를 아는 것 ②진실할 것 ③이익될 것 ④부드러울 것 ⑤자비로운 마음일 것입니다. 사분율(四分律)에서는 두 가지를 오법이라 하며, 본문 중에서는 후자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칠법(七法)**: 교단의 다툼을 그치게 하는 일곱 규칙으로 ①현전비니(現前毘尼, 쟁론자를 대면해 시비를 판단) ②억념(憶念)비니(쟁론 시 타인으로 하여금 범행의 유무를 증명함) ③불치(不痴)비니 ④백언(白言)비니 ⑤다어(多語)비니 ⑥죄처소(罪處所)비니 ⑦초부지(草覆地)비니 등이 있습니다.

〈송림사 주지〉





사찰 편백나무 맞춤가구 전문점

스님 건강, '편백가구'로 지킨다

편백(히노끼)나무 효능

편백나무는 항균효과가 뛰어나 세균번식에
가장 취약한 목욕 욕조를 비롯하여
인테리어 용품, 주거용 목재, 침대 등 가구소재로 주로 사용된다.
특유의 향으로 인해 정신을 맑게 하는데 이는 피톤치드 때문이다.
편백나무는 일반나무보다 5.5배 가량 피톤치드가 많아
삼림욕을 하면 심신이 안정된다.

편백 온열 그래핀보료

신체 기(氣, Energy)를 충전하고 균형을 바로 잡는 초장파 에너지

건강하고 오래사는 것은 인류의 오랜 소망
지친 몸과 스트레스를 수면과 함께 깔끔하게 해결하세요.

• 피로 회복
• 근육 결림 해결
• 혈액 순환 개선
• 신경통, 근육통 완화
• 만성 피로 해소



FINE TERRA
love is fineterra
규조토 비누 'FINE TERRA'
절찬 판매
판촉용 대량구매시 70% 할인
향긋함과 함께~ 기다려지는 세안~~~
알파토 규조토 soap 민감성 피부에 도움

편백침대





숙면이 보약
편백 숲침대



그린에너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42-2735 010-3576-6802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전제품 국내산